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신학 전문, 세션 13, 전달 불가능한 속성, 파트 4, 하나님은 불변하고 위대합니다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로버트 피터슨 박사와 그의 신학 또는 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3, 전달 불가능한 속성, 4부입니다. 신은 불변하고
위대합니다.

신의 교리 또는 신학에 대한 우리의 연구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른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당신이 당신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우리가 당신을 알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곳에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당신을 위해 살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위 비전달적 속성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의 피조물과 공유하지 않는 독특한 속성입니다. 복습하자면, 그는 살아
계신 하나님, aseity입니다.

그는 하나이며, 통일의 속성입니다. 신은 영이며, 무한하며, 어디에나
존재하며, 편재하고, 전능하고, 전능하며, 전지하고, 전지하며, 영원하며,
이제 우리의 마지막 두 속성입니다. 신은 불변하거나 변하지 않으며, 신은
위대합니다.

변하지 않거나 불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격이나 본성이 하나님의
변화하는 창조물과 달리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02:27,
인용문, 당신은 동일하며 당신의 세월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에게 직접 적용된 구절로,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언급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음 구절인 시편 102:28은 "우리는 변화하는, 가까운,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안전하게 거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고,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반항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바위로 남아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비난하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용하자면, 나 여호와가 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야곱의 자손이 멸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라기서 3장 6절. 이것은 불변성에 대한 핵심 본문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문맥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레이트 오스본의 *헤르메네우틱 스파이럴*은 정당하게 영향력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는 자유주의적 헤르메네우틱 늪 대신, 우리가 텍스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헤르메네우틱 스파이럴을 가르칩니다. 그는 표적을 가지고 있으며, 표적은 표적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가는 동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학적 맥락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경우 표적은 말라기 3 :6입니다. 원을 확대하는 다음 막대는 말라기 2:17에서 3:6 또는 3:5, 바로 앞의 구절 등입니다. 다음 막대는 말라기 3장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말라기서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선지서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약성서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막대는 성경 전체, 마지막 고리입니다. 그것은 말라기 3:6의 맥락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오스본이 잘 보여주듯이, 원이 작을수록 해당 구절이나 구절을 이해하는 데 더

즉각적으로 중요합니다. 말라기 3:1,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저 사람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찾는 주님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오실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 보라, 그가 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나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설 수 있겠느냐? 그는 정련공의 불과 같고, 세탁공의 비누와 같으니라.

그는 은을 정련하고 정화하는 자로 앉을 것이다. 그는 레위의 아들들을 정련하고 금과 은처럼 그들을 정련할 것이다. 그들은 의로움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과 같이, 이전 해와 같이 주님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때에 나는 심판을 위해 너희에게 가까이 갈 것이다. 나는 점술가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과 품꾼의 삯을 압제하는 자들과 과부와 고아들과 나그네를 밀어내는 자들을 상대로 신속하게 증거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런 다음, 6절이 있다. 나, 주는 변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소멸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견고함, 언약적 신실함, 그리고 그의 백성에 대한 헌신에 있어서 변함없는 성품이 그들의 지속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의 날부터 너희는 내 법규에서 돌아서서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계속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주는 영역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있으며, 그는 그들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성격은 그의 백성에 대한 그의 충실한 헌신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안정적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변함없다는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미지로는 바위, 시편 62편, 1편과 2편, 빛의 아버지, 야고보서 1:17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핵심 구절이며,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12는 시련 속에서도 굳건히 머무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그가 시련을 견뎌낸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유혹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으로 유혹을 받으실 수 없고, 그분 자신도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신의 욕망에 유혹을 받아 유혹을 받는다. 이것이 죄를 낳는 언어이다.

이것이 모성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죄는 완전히 자랄 때 죽음을 낳습니다. 그것은 여성적 이미지, 인격화된 이미지에 대한 퇴보이며, 이런 것들은 물론 인격화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욕망은 반드시 악한 단어는 아니고, 반드시 죄를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여기서는 강한 욕망입니다. 그것이 임신하면 죄를 낳습니다. 의미는 어머니가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번역에서는, 정욕은 성적 욕망보다 더 넓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시, 좋은 성적 욕망이 있고, 불법적인 성적 욕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욕망과 나쁜 욕망이 있으며, 모든 다른 영역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어머니, 말하자면, 욕망, 이 경우, 악한 욕망은 죄를 낳습니다. 악한 욕망이 주어지면 죄가 생깁니다. 그리고 죄는 여성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자라서, 임신하고, 죽음을 낳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미지입니까. 욕망은 임신되면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는 완전히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단순한 은유, 단순한 그림일 뿐입니다. 하지만 강력하게, 그것은 주어진 악한 욕망이 주님께 대한 죄와 범법을 낳고, 우리가 같은 영역에서 고집한다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물론 불신자의 경우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느님은 유혹하지 않으시고, 유혹받을 수도 없으시고, 유혹하지도 않으십니다. 유혹은 내면에서 옵니다.

나중에 야고보서에서 그는 유혹이 사탄에게서 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악마가 나를 그렇게 하게 했고, 개인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의 요점이 아닙니다. 그는 죄에 대한 유혹에 대한 완전한 신학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성경은 어느 한 곳에서 어떤 것에 대한 완전한 신학을 거의 제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소 가끔씩 나오는 문서이고, 여기서 그는 청중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청중의 아주 가난한 사람들, 등등에 대해 특정한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신은 당신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유혹은 내면에서 온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벽한 선물은 위에서 내려 오며, 빛의 아버지, 천상의 친구, 별의 창조주로부터 내려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은하계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시에는 허블 망원경이 없었습니다.

신은 빛의 위대한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빛은 움직이고 그림자를 만들지만, 신은 그런 의미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은 자신이 변하거나 이동하면서 생기는 그림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좋은 것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내려오며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에게는 변화나 변화로 인한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의 예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가 그의 창조물 중 일종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교리이며, 여기서는 아버지의 뜻에 기인합니다. 베드로전서 1:3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새 생명 뒤에는 아버지의 자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선하고 완전한 선물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 새 생명.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 그들이 첫 열매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들이 거듭나게 하시는 그의 주권적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성격은 그의 백성에 대한 그의 충실한 헌신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안정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변 또는 변함없음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고 잠시 후에 자격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반복하자면, 그의 존재가 변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 신의 이미지는 바위, 시편 62:1, 2, 그리고 빛의 아버지, 야고보서 1:17이 포함됩니다. 그는 그들과 달리 움직이지 않고, 변하는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격은 변함없지만, 그는 또한 언약을 통해 우리와 공식적인 관계를 맺는 인격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개인적 관계에 대한 보증, 표시, 인장입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과 대대로 세운 언약을 확증하리라” 창세기 17:7. 그것은 당신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 후손의 하나님이 되는 영구한 언약입니다(창세기 17:7). 아브라함 언약은 모세 언약의 기초였으며,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언약의 은혜와 믿음의 맥락에서 모세 언약을 빼돌렸지만,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비판했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31장에서 예언되고 예수 안에서 성취된 새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확장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며, 우리가 아브라함 /새 언약에 포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누구이신지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진정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원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불변성을 침해합니까? 와, 와, 와.

위반? 무슨 소리야? 이런 속성은 모든 기독교 신학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시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신학에 책임지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점진적 계시에서 고려되는 그의 말씀에 대한 해석에서 그의 말씀의 가르침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라기서 3장과 야고보서 1장에서 모두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지만 그분이 어떻게 변하지 않고 어떻게 변하는지 말씀하게 합시다. 물론,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이것이 소위 하나님의 회개 문제를 다루는 적절한 맥락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하나님이 회개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두 구절을 올바르게 번역했습니다. 민수기 23:19, 사무엘상 15:29. 민수기 23:19, 사무엘상 15:29.

저는 그 중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 위해 읽을 것입니다. 좋은 책입니다. 명확한 책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의 불신과 불순종, 뻔뻔스러운 불순종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서 왕국을 찢어내어 당신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다고 알린 후,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5:29.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도.

하나님을 지칭하는 얼마나 놀라운 방법인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후회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후회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ESV가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번역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그럴 수도 있었지만요. 하지만 민수기 23:19 과 사무엘상 15:29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하신다는 것을 올바르게 부인하는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것을 살펴봐야겠어요. 번역의 일관성을 위해 ESV를 고수하지 않아요. 항상 같은 표현을 같은 방식으로 번역하면 안 되거든요. 숫자.

신은 사람이 아니다. 오, 나의 말씀. 발락.

오, 세상에. 그는 진정한 신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신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걸 알아내세요. 신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아니면 사람의 아들이시니 마음을 바꾸실 리가 없습니다.

오, 이런. 발락은 다음에 이야기하자. 자신이 하는 일을 정말 잘 아는 구약학 교수들을 위해서.

헐. 간단히 말해서, 당나귀가 당신을 바로잡는다면, 당신은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고용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발람에 이어 다음 장에서 성공했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 그는 사람들을 성적 부도덕과 우상 숭배로 이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는 유다서와 베드로후서에서 정죄를 받는다. 그들이 너희가 발람의 길을 갔다고 말했을 때,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방탕함과 큰 악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KJV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글쎄요, 사실 일관성이 있고, 그게 신학적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더 잘 표현하면, 두 번이나 하나님이 회개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구절을 번역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가 회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창세기 6:6과 7.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읽지 않을 겁니다. 두 번 읽을 겁니다.

출애굽기 32:14. 12절과 14절. 사사기 2:18절.

사무엘상 15:11과 35. 요나 3:10. 요나 4:2. 한 번 더.

KJV는 경건한 사람들이 한 좋은 번역본입니다. 400년 이상 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시대를 가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유에서 저는 기독교인에게 현대 복음주의 성경 번역본을 사용하라고 권장합니다.

NASB, NIV, ESV.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책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개혁의 원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400년 전의 언어인 영어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 하지만 새로운 킹 제임스 성경이 있어요. 새로운 킹 제임스 성경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문화권에서 새로운 번역이 필요해요.

모든, 모르겠어요, 두 세대? 한 세대일 수도. 두 번째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신약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좋은 사본이 20세기 초에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이 완성된 지 300년 후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래도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소통이라는 명목으로, 마틴 루터는 많은 시간을 들여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오늘날에도 히브리어 성경, 구약성서에서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불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종류의 토끼. 토끼나 다른 종류의 동물.

루터는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독일 동물을 그 안에 넣었습니다. 성경이 소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와우. 칼빈의 사촌 올리비에 탄이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했습니다. 왜? 그들은 사람들의 언어로 성경을 원했습니다.

라틴어로 유지해야 합니다. 트렌트조차도 라틴어가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라고 말했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가 아닙니다. 또다시.

어쨌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신약성경 사본들이 20세기에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KJV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창세기 6:6과 7, 출애굽기 32:12과 14, 사사기 2:18, 사무엘상 15:11과 35, 요나 3:10과 4:2에서 회개하신다고 말할 때 오류를 범합니다. 이러한 구절과 유사한 구절은 하나님의 안정적인 성격을 그의 백성과 진정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표현으로 성경이 분명히 확인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내용, 변하지 않지만 시간 속에서

인간에게 반응하는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은 John Frame의 *The Doctrine of God* , 543~575쪽을 참조하십시오.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훌륭한 큰 대접. 프레임, *신의 교리*, 543~575. 현대 번역은 이 구절을 더 잘 처리하는데, Christian Standard Bible 에서 보여 주듯이, 주님이 창세기 6장, 사무엘상 15장을 주님이 후회하셨다 또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로 번역합니다.

출애굽기 32:12과 14, 요나 3:10 또는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사사기 2:18. 이 구절들 각각에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본성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경우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진정으로 반응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는 깊이 괴로워하십니다. 우리가 상처받을 때, 그는 진정으로 자비로우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분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말라기서 3장에서 그분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신 후에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겠다. 야고보서 4:8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행동하십니다.

야고보서 4:2. 야고보서 5:13, 18.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는 우리를 용서하신다. 야고보서 5:15-16, 요한일서 1:9.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고정되어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은 역사적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프랜시스 셰퍼가 말했듯이, 철학자들은 그를 때렸고, 그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학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은 무한한 인격적 신입니다.

그의 무한함 속에서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개인적 존재 속에서 그는 언약을 통해 그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응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속성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8.

이러한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만 참되며, 따라서 그리스도가 신성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사악한 욕망이 우리를 죄로 이끅니다.

그는 경고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든 선하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내려오며,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는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16, 17.

신은 내가 이전에 말했듯이 천상의 빛을 창조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달리, 그는 변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달처럼 위상이 없습니다.

그는 본성이 안정적입니다. 그는 항상 선합니다. 그리고 스타워즈 신학과 달리 신학을 가르치기 위해 의도된 것이라면 신은 어두운 면이 없습니다.

포스와는 달리. 하나님의 성격의 안정성은 우리에게 큰 안전을 준다. 시편 102편 27절.

우리는 시작했던 곳에서 끝납니다. 시편은 훌륭합니다. 선하심이 은혜롭습니다.

성경은 훌륭합니다. 시편 102:27. 25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당신은, 그 의미는, 오 주님,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은 당신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과

야고보에게 직접 인용되고 적용됩니다.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 그러나 당신은 남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옷처럼 바꾸실 것이요, 그들은 지나갈 것이나, 당신은 변함이 없고 당신의 해는 끝이 없나이다. 당신의 종들의 자녀들은 안전하게 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의미입니다.

그들의 자손은 당신 앞에 세워질 것이다.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우리는 항상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 나는 그 구약의 이미지를 좋아한다.

그는 우리의 반석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습니다. 다른 민족, 이교도들에 대해 말합니다.

이교도 국가. 맞아요. 우리의 반석은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복음을 뒷받침합니다. 복음은 메시지입니다. 누군가 이 강의를 듣고 그리스도를 모를 수 있을까요? 매우 가능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오, 그는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시야에 들어오면, 이 빛이 내 손을 때릴 때, 우리 모두는 그의 빛 안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요한일서 1장,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입, 행동으로 죄를 확신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손에서 말입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주님이자 구세주로 신뢰하는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3:16)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사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것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나타내시느니라(롬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그는 자신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러니, 만약 당신이 신의 교리에 대한 이 비디오테이프를 보고 있다면, 우리는 당신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권장합니다. 신을 기쁘시게 하려는 당신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절망. 그것은 우스꽝스럽고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쾌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마지막 구절은, 만일 의가 율법에서 나온다면, 예수는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빈 무덤에서 나온 그리스도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죄인이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를 당신의 대속자로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이 복음을 뒷받침합니다. 그것이 그 설교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불변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그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구원을 누릴 것입니다. 히브리서 6:18과 19를 인용합니다.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통해 우리는 이 소망을 영혼의 닻으로, 견고하고 안전하게 지킵니다.

히브리서 6:16~18.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충실해야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지켜지는 궁극적인 근거는 우리의 충실함이 아닙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격은 이미 추측했을 수 있듯이, 그의 신실함과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을 하나의

속성으로 합칠 수 있습니다. 속성을 정리하거나 나열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비전달적 속성은 종종 무시되지만,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적으로 말하면 ,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위대하시며, 이는 하나님이 지극히 중요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위엄은 무한합니다. 그는 홀로 높고 존귀한 분이시며, 그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선포하듯이,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출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갈대 바다에 빠뜨린 후에, "주님, 신들 가운데 당신과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거룩함에 영광스럽고, 찬양으로 경외를 받으며, 이적을 행하는 자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15:11.

하나님의 위대함에 관한 이미지로는 이사야 40:21-24가 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40장은 훌륭합니다. 이사야 40:21.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처음부터 너희에게 전해지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깨닫지 못하였느냐? 땅의 원 위에 앉으신 이는 그이시요, 그 거민은 메뚜기와 같아서 하늘을 휘장같이 펴고 거할 천막같이 펼치시며 , 군주들을 무로 만드시고 이 땅의 통치자들을 공허하게 만드시는 이시니라. 그리고 이제 이사야는 통치자들을 식물의 씨앗에 비유합니다.

그들이 심어지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땅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그가 불어서 시들고 폭풍이 그들을 쪼터미처럼 쓸어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와 같아야 한다고 거룩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얽힌 수많은 속성의 이미지를 하나씩 쌓아올리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다.

신의 위대함을 말하는 이미지에는 그의 왕적 이미지인 신은 왕이다가 포함됩니다. 이 속성은 주님의 독특성을 강조하는데, 특히 우리가 이전에 다루었던 주제인, 우상일 뿐인 민족의 소위 신들에 대항합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 당신과 같은 이가 없고, 당신의 일과 같은 일이 없습니다.”

주님, 당신이 만드신 모든 민족이 와서 당신 앞에 절하고 당신의 이름을 공경할 것입니다. 당신은 위대하고 기사를 행하십니다.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6:8~10. 또한 96:3~5를 보십시오. 시편 86:8~10. 96:3~5. 때때로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른 속성과 결합합니다.

다음 구절들은 각각 그의 주권, 신실함, 권능을 위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성경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그림책이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은 이야기책입니다.

그것은 창조, 타락, 구원, 그리고 완성 또는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참된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창조, 창세기 1장과 2장, 타락은 주목할 만한데, 그것은 성경 전체의 한 장, 창세기 3장인데, 성경의 주요 구분이 구약과 신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념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주요 구분은 타락 전과 타락 후입니다.

타락은 모든 것을 바꾼다. 구원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해서 계시록의 마지막까지 이르는데, 계시록에서 우리는 완성을 보게 된다. 물론 완성은 그 과정에서 다른 곳에서 언급되지만, 계시록, 특히 21장과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말하고, 우리의 전천년 왕국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서곡으로 선행하는 것은 계시록 20장일 것이다.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고, 저는 그 문제를 다룰 때 모든 다른 밀레니얼 세대의 관점을 제시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결합하고, 우리가 연구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전달할 수 없는 속성, 즉 그의 위대함과 결합합니다. 시편 135:5, 6, 나는 주께서 위대하심을 압니다.

주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다. 주님은 하늘과 땅, 바다와 모든 깊은 곳에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시편 135 :5, 6. 느헤미야 1:5,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지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그의 은혜로운 언약을 지키시는 주.

그리고 그 문장은 물론 계속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1:5. 예레미야 10:6, 7, 주님, 당신과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위대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권능이 크시도다. 누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만국의 왕이지요? 당신이 마땅히 받을 만한 일입니다. 모든 만국의 지혜로운 자들과 모든 왕국들 가운데 당신과 같은 이가 없나이다.

예레미야 10:6과 7. 시편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인격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시편 8:1과 9. 시편 148:13. 시편 8:1과 8, 9. 시편 148:13.

시편은 또한 그의 위대한 업적을 찬양합니다. 시편 145:3~6을 들어보세요. 주님은 위대하고 크게 찬양받으십니다. 그의 위대함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당신의 행위를 전하고 당신의 위대한 행위를 선포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영광과 영광스러운 위엄과 당신의 놀라운 일을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의 힘을 선포할 것이고, 나는 당신의 위대함을 선포할 것입니다.

시편 145:3~6. 이 강의의 마지막 문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은 우리가 그분만을 경배하게 합니다. 시편 86, 8~10.

시편 96:3~5.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46~48. 마리아의 찬가의 말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이 하나님, 나의 구세주 안에서 기뻐하노라.

이는 그가 그의 종의 비천한 처지를 돌아보셨음이니,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위대한 분이 나를 위해 큰 일을 하셨고 그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은 우리를 그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시편 96:3~5. 예레미야 10:6~7. 하나님의 위대함은 우리를 그의 주권적 손에 복종하게 합니다.

시편 135:5, 6.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그의 언약적 신실함을 신뢰하게 합니다. 느헤미야 1:5. 우리는 계속 그것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을 증거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시편 145:3~6.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유 속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공유 속성입니다.

이것은 로버트 피터슨 박사와 그의 신학 또는 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3, 전달 불가능한 속성, 4부입니다. 신은 불변하고 위대합니다.